

세계성서공회 연합회의 성서 번역

알루 모졸라*

I. 나이다와 나이다 이후의 관점¹⁾

들어가는 말

20세기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성서 번역은 나이다의 관점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에릭 노쓰(Eric M. North)가 1974년 나이다의 60회 생일을 맞이하여 그의 생애와 공헌을 평가한 말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Matthew Black과 William Smalley가 편집한 *On Language, Culture and Religion - In Honor of Eugene A. Nida*. The Hague: Mouton, 1974: vii-xxvii를 보라). 나이다가 성서번역에 기울인 관심과 노력과 헌신은 1930년대로부터 시작하여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진다. 그의 글과 생각은 지난 세기를 풍미하였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그에게 빚지고 있는 셈이다.

1. 유진 나이다가 번역학에 미친 공헌 몇 가지

ㄱ) 나이다는 지축을 뒤흔든 다음의 책으로 번역학에 불길을 붙인 선구자이다. *Bible Translating, ABS, 1947.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E. J. Brill, 1964.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이하 TAPOT, Charles Tabor와 공저). E. J. Brill, 1969 (번역학). *Customs and Cultures*. Harper & Row, 1954 (다문화간 연구). *Message and Mission*. Harper & Row, 1960 (전달 이론). *Componential Analysis of Meaning*. Mouton, 1975: *Greek Dictionary based on Semantic Domains*(Johannes Louw와 공저). UBS, 1988. (의미론과 사전 편찬학) 등.

ㄴ) 나이다는 전세계적으로 여행을 하면서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번역고문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일, 곧 먼 곳에 떨어져 있는 번역진을 찾아다니는

*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아프리카 지역 번역책임자, 케냐 나이로비.

1) 2003년 2월 성서 번역자 양성을 위한 세미나, 세 번째 발표.

일을 가장 먼저 시작하였다.

ㄷ) 나이다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번역고문 제1세대를 모집하고 훈련시켰다. 오늘날 이 그룹은 그 수가 훨씬 늘어났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나이다가 성서번역 분야를 전문화시켰다는 점이다. 윌리엄 스몰리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진 나이다는 1943년 미국성서공회의 직원이 되었을 때 전문가를 모집하고 번역이론과 그 이론에 따른 번역과정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William Smalley. *Translation as Mission*. Macon, Georgia: Mercer University Press, 1991: 28).

ㄹ) 나이다는 내용의 동등성이라는 번역이론을 만들어 대중화시켰다. 이 이론은 영어 『복음성경』(GNB)과 『현대영어역』(CEV), 독일어 『복음성경』(DGN), 『현대프랑스어역』(BFC), 스페인어 『대중역』, 스와힐리어 『비블리아 하마리 제마역』 등과 같은 모델 번역으로 구체화되기도 하였다.

ㅁ) 나이다는 『비블리아 헤브라이카』와 『그리스어 신약』의 비평본 편집진을 구성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일을 주도하였다.

ㅂ) 나이다는 성서번역자용 핸드북과 단행본 등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번역자 지침서 제작을 발전시켰다.

2. 나이다 관점의 몇몇 특징

ㄱ) 기존의 언어학 이론에 기초하여 영감을 받아 이후에 인류학과 다문화간 연구, 전달이론, 의미론, 사전편찬학, 기호학에서 얻은 통찰을 펼쳐나간 이론이다.

ㄴ) 본디 기능주의자이면서 다양한 번역이 가능하다는 이론을 갈파한 그의 번역 이론은 영어 『복음성경』(GNB) 류에서 볼 수 있는, 이른바 쉬운 번역을 장려하는 경향을 띤다.

ㄷ) 다문화간의 대화에서 얻은 통찰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좀 복잡한 전달 모델(*Message and Mission*. Harper, 1960)에 근거해 있는 이론으로, 나이다는 의미를 재생산해 내는 일이 바로 번역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마이클 리디(Michael Reddy)는 “물길 은유의 허구”라고 부른다(Andrew Ortony. ed. *Metaphor and Thought*. Cambridge, 1979: 284-324에 실려 있는 Michael Reddy의 글 “The Conduit Metaphor - A case of Frame Conduit in Our Language about language”와 William Frawley가 이에 대해서 논의한 *Text and Epistemology*, Norwood, NJ: Ablex Publishing Corp., 1987:129-181을

보라). 이 은유에 따르면, “언어란 사람이 말로 생각을 전달하는 체계이다. 이 생각이라는 꾸러미를 받아들이는 이는 말에 담겨있는 생각을 성공적으로 대화 상대를 완성한다”(앞의 책 131쪽). 이 은유는 상황과 무관한, 시간과 공간과는 상관없는 객관적인 의미라는 문제점을 낳는다.

ㄷ) 나이다와 테이버가 말하는 번역의 세 단계 “분석, 옮김, 재구성”은 이렇다. “(1) 분석이란 A라는 언어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a) 그 문법적 관계와 (b) 단어의 의미와 단어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잘게 나누는 일이고, (2) 옮김이란 분석한 자료를 번역자 마음 속으로 A라는 언어에서 B라는 언어로 바꾸는 일이고, (3) 재구성이란 바꾼 자료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번역문 언어로 다시 짜맞추는 일이다”(TAPOT, 33쪽). 이러한 작업은 문장과 낱말의 핵심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기에(앞의 책, 39쪽), 이야기나 장르, 문학이론을 무시하는 경향을 띄기도 한다. 제임스 홈즈(James Holmes 1988: 100)가 이미 70년대에 바로 지적한 대로이다. “문장에 얽매인 언어학에서 시선을 돌려 본문의 성격에 대한 이론을 제대로 펴내지 않고서는 적절한 번역이론을 발전시킬 수는 없다. 이러한 이론은 부분이 어떻게 함께 전체를 이루느냐하는 본문의 형식에 광범위한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본문 자체가 아주 복잡한 의미의 패턴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문은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ㄹ) 나이다의 관점은 유럽 중심의 보수적인 개신교회 선교운동 관점에서 발전되었다. 하지만 바티칸 제2공의회와 덕분에 가톨릭교회의 협력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정교회와 남부 대륙의 신학교회들을 포함한 모든 교파와 교단을 다 아우르는 운동으로 성장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모든 문화와 전통에 열려 있는 자세로 전지구적인 포용성을 추구하는 강력한 내적 힘을 기르게 되었다.

3. 나이다 이후의 관점에 대한 몇 특징

ㄱ) 성서번역은 이제 더 이상 언어학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 광범위한 언어학뿐만 아니라 다문화 연구, 문학기론, 전달이론, 성서학, 고고학, 역사학 그리고 인류학과 사회학을 다 아우르는 여러 학문의 관점에서 얻은 통찰로 성서번역을 바라보아야 한다.

ㄴ) 성서번역은 이제 문자주의, 형식주의, 문학기론, 탈식민주의, 외국풍을 따르는 방식 또는 모국어 어법을 중시하는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ㄷ) 성서번역뿐만 아니라 일반 번역학 분야에서 번역이란 이제 본문을 다시 쓰는 행위로 점점 이해되고 있다. 이 점은 수잔 배스넷(Susan Bassnett)과 앙드레 레피브르(Lefevere)가 다음과 같이 잘 표현하였다. “번역이란 당연히 원문을 다시 쓰는 것이다. 다시 쓴다는 것은 그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어떤 이데올로기와 시학을 반영하는 것이다. 곧 기존의 사회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기능해 온 문학을 통하여 조종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쓰기는 힘을 통하여 조종하는 일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문학과 사회의 혁명을 꾀하는 일이다. 다시 쓰기를 통하여 새로운 개념, 새로운 장르, 새로운 기법을 배울 수 있다. 따라서 번역의 역사는 문학의 개혁사이며 한 문화권의 힘을 다른 문화권에 행사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다시 쓰기는 또한 개혁을 억누르고 뒤튼고 짓누를 수 있다. 여러 면에서 조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세대 속에서 우리는 번역을 예로 삼아 문학의 조작 과정을 연구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좀더 유심히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Lawrence Venuti.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Routledge, 1995: vii).

ㄹ) 성서번역은 어떠한 배경에서 생겨났는가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곧 그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조직적인 배경과 교단적인 배경은 무엇인지 또 번역진은 어떻게 구성되어 왔으며 그 구성원의 성격과 이데올로기는 무엇이고, 어떤 점을 기대하고 본문을 내놓느냐 하는 점 등을 말한다. 이것은 평가 기준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평가 기준이라는 개념은 마빈 민스키가 그의 유명한 글에서 발전시킨 개념이다. 또한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새로운 시리즈인 Timothy Wilt. ed. *Bible Translation - Frames of Reference*, St. Jerome, 2002를 보라).

ㄴ) 번역은 이제 더 이상 나이다 식으로 의미의 재생산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 베누티(Venuti)의 말처럼 “원문을 구성하고 있는 일련의 의미소를 번역자가 해석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번역어로 일련의 의미소를 옮기는 과정”이라고 정의해야 할 것이다(Venuti 1995:18을 보라). 이 말을 하면서 베누티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인다(앞의 책 같은 쪽). “외국어 본문과 번역문은 모두 파생물이다. 둘 다 외국인 저자나 번역자에게서 비롯되지 않은, 언어와 문화적으로 다양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의 의도와는 다를 수도 있을 만큼 그리고 피할 수 없이 그 이상으로 작품을 불안정하게 한다. 따라서 한 외국 작품의 어느 한 번역은 다른 문화적 관점과 해석의 선택 폭에 따라 특정한 사회 상황과 역사적 배경에서는 단지 하나의 의미를 드러낼 수 밖에 없다. 의미라는 것은 다양하고 우연한 진술일 뿐이다. 한 번역이 변치 않는 오직 하나의 뜻만 드러낸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

서 번역을 의미론적인 동등성이나 상응이라는 관점에서만 평가할 수는 없다. 곧 외국어 본문의 번역을 언어적으로 흠이 없다거나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번역의 정확도라는 말이나 ‘직역’ 또는 ‘자유역’이라는 말도 시대적인 산물일 뿐이다. 심지어 ‘언어적인 흠’이라는 말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문학 작품에서 오역(誤譯)이라는 것도 번역을 받아들이는 문화에서는 때로 이해될 수도 있으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번역이 살아남느냐 마느냐는 그 번역을 생산하고 읽는 문화적 사회적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번역은 언어와 문화 사이에서 원문과 번역문이라는 두 언어가 개입하여 대화하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이 사건 속에서 번역자는 두 언어와 문화와 가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원문을 읽고 해석하여 번역어로 본문을 생산하는 자이다. 이때 번역문 독자의 필요성과 원문의 기능이나 의도 또는 번역의 스키포스, 곧 번역의 의도를 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사건의 질과 효과와 성공여부는 이러한 모든 요소의 통합적 기능이다. 물론 번역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문제는 훨씬 복잡하다. 따라서 연구자 중 많은 이들은 번역은 어떤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지 않기도 한다. 오늘날은 나이다와 테이버 시대처럼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 번역에 대한 정의가 없다. 대표적인 번역학자 가운데 어떤 이는 경험적으로 다음과 같이 그 개념을 정의하기도 한다. 곧 번역이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던 번역어를 사용하는 문화에서 번역이라고 간주하고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한다(Gideon Tourmy).

ㄴ) 요즘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일반적인 경향은 기능주의 및 문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교회와 독자와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II. 세계성서공회 연합회의 성서 번역에 대해서 자주 듣는 몇몇 질문²⁾

1. 왜? 무엇 때문에 번역하는가?

ㄱ) 히브리 성서(구약)은 몇몇 아람어 구절(단 2:4하반-7:28; 스 4:8-6:18; 7:12-26)을 빼고 본디 히브리어로 씌어졌다.

ㄴ) 신약과 칠십인역은 본디 그리스어로 씌어졌다.

2) 2003년 2월 성서 번역자 양성을 위한 세미나, 네 번째 발표.

ㄷ) 칠십인역의 예

ㄹ) 제롬과 라틴어 불가타역의 예

ㅁ) 마틴 루터와 독일어성경의 예

ㄴ) 번역성경은 다음과 같은 교회의 필요에 의해 사용된다.

① 복음전파

② 기독교 교육과 신학 연구

③ 예전과 예배

④ 교리의 확립과 지속성

⑤ 교회의 선교와 비전에 대한 소명과 도전

ㄷ) 그리스도교회의 기본 문서인 성서 - 교회 일치와 교파를 초월한 기능

ㄹ) 문학 작품인 성서 - 다른 문학과 문화와 언어에 미친 영향

ㅈ) 19세기 부흥운동과 선교운동, 성서공회 운동(영국성서공회, 세계성서공회연합회, 각 성서공회)의 예

2. 무엇을?

ㄱ) 번역이란?

유진 나이다의 고전적 정의(Nida 1969:12) - “원문의 메시지를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번역문의 언어로 재생산하는 일로, 우선은 의미를 그 다음은 문체를 고려한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 원문을 상징한다
- 옮기는 일을 상징한다
- 관계성을 상징한다
- 동등성(수학적 개념?)의 문제
- 상이성의 문제

ㄴ) 번역의 기본 단위는? - 낱말, 문장, 단락, 이야기 단위, 장르, 전체 본문? 전체 언어체계와 그 밑바탕이 되는 사회문화 체계는 위의 단위로 인해야기되는 의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ㄷ) 다음의 상황에서 번역할 때 해석의 역할은?

- 관점의 문제
- 힘의 문제
- 다원주의와 다양성의 문제

ㄹ) 무엇을 번역하는가? 원문은?

① 히브리어 구약?

- ② 그리스어 신약 또는 칠십인역?
- ③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등 기존의 번역성경?
- ④ 주요 방언으로 번역된 성경?
- ㄱ) 어떤 정경을 번역하는가? - 정경 문제
 - ① 개신교회, 가톨릭교회, 정교회의 정경
 - ② 원 정경
 - ③ 제2경전 - 7권 또는 14권
 - ④ 책의 순서와 배열
 - ⑤ 장절 매김

3. 누구를 위하여?

- ㄱ) 누구를 위한 번역인가?
 - 성인 또는 어린이?
 - 여성 또는 남성?
 - 청소년과 어린이?
 - 그리스도인 또는 비그리스도인?
 - 교육받은 이 또는 교육을 덜 받은 이?
 - 신학자와 성서학자 또는 비신학자와 비성서학자?
 - 가톨릭교인 또는 개신교인 또는 정교회 교인 또는 새신자?
 -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이 또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이?
 - 인쇄물 또는 비인쇄물?
 - 언어의 수준은? (방언, 고급 문장과 보통 문장, 식자층 문장과 평범한 문장 등)
- ㄴ) 사회언어학적인 조사와 시장조사 등은?
- ㄷ) 독자층의 이데올로기적, 고백적, 신학적 배경의 역할?
- ㄹ) 번역의 목적, 기능, 용도?
- ㅁ) 신학이나 이데올로기 등은 번역에 영향을 미치는가?

4. 누가?

- ㄱ) 누가 번역하는가? - 몇몇 역사적인 예
- ㄴ) 누가 번역해야 하는가? 이상적인 성서번역자의 자질은?
 - 번역자의 도덕적 무결과 권위
 - 번역자의 신앙적 헌신이나 믿음 체계나 이데올로기적 성향

- (전반적인) 교육 수준
 - 원어과 번역어의 언어적 지식
 - 성서의 문화, 본문, 언어의 지식
 - 번역어 문화, 문학, 언어의 지식
 - 모국인 또는 외국인?
- ㄷ) 한 사람 또는 팀?
- 번역진의 구조
 - 검토자들(나이, 언어, 교회, 성, 교육, 전문분야 등)의 역할

5. 언제?

- ㄱ) 언제 번역해야 하는가?
누가 번역을 주도하는가?
누가 번역을 읽는가?
번역 시작은 누가 결정하는가?
번역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직원
사무실
번역 및 참고 자료
컴퓨터 자원
재정
- ㄴ) 번역의 필요성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교회
성경 관련 기관들?
관심 있는 개인?
사회언어적 조사나 시장 조사?
관심 있는 원어민의 요청?
- ㄷ) 초교파적 협력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ㄹ) 다른 언어나 인접 언어로 된 번역이 있다면 얼마나 사용 가능한가?
ㅁ)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수는? - 치앙마이, 미시소가와 미드랜드에서 있었던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평가 대 SIL 평가

6. 어떤?

- ㄱ) 어떤 매체?

- ① 인쇄물 - 책, 만화, 접자
- ② 오디오 또는 비디오 - 오디오, 뮤지컬, 비디오, 오디오-비디오, 다중 매체
- 나) 어떤 체제?
- 디) 비용 문제

매체의 전환

- 가) 찬반 양론
- 나) 득실
- 디) 충실성 평가 기준

7. 어떻게?

- 가) 문자주의적 입장(형식적 일치)
- 나) 내용의 동등성 입장(의미에 근거를 두는 입장)
- 디) 기능주의적 입장
- 리) 문학적 및 본문 언어적 접근
- 코) 모국어 어법 및 외국어풍 입장

앞으로 더 읽을 것을 추천하는 책의 목록

1. Eugene Nida & C. Tabe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2. Eugene Nida & Jan de Waard.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3. J. Beekman and J. Callow. *Translating the Word of God*.
4. Mildred Larson. *Meaning-Based Translation - A Guide to cross-language equivalence*.
5. E. H. Robertson. *Taking the Word to the World - 50th years of the UBS*.
6. William Smalley. *Translation As Mission*.
7. Philip Stine. ed. *Bible Translation and the Spread of the Church*.
8. Lamin Sanneh. *Translating the Message*.
9. Andrew Walls. *The Missionary Movement in Christian History*.
10. Lawrence Venuti.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11. David Katan. *Translating Cultures*.

12. Mona Baker. ed.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13. Mark Shuttleworth. *Dictionary of Translation Studies*.
14. Jeremy Munday.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 theories and application*.
15. Basil Hatim. *Teaching and Researching Translation*.
16. Robert Hodgson and Paul Soukoup. *From One Medium to Another*.
17. Robert Hodgson and Paul Soukoup. *Fidelity and Translation*.
18. Julian Sundersingh. *Audio-based Translation*.
19. Tim Wilt. ed. *Bible Translation - Frames of Reference*.
20. J. A. Naude & C. H. J. van der Merwe. ed. *Comtemporary Translation Studies and Bible Translation*.

번역: 이환진